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mailto: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92호

2026년 3월 15일(가해)

<p>미사 안내</p>	<p>평일</p>	<p>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p>	<p>주일</p>	<p>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amp;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p>
<p>연령회</p>		<p>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p>		



## 오늘의 미사

## 사순 제4주일

<p>▶ 1독서 : 사무엘기 상권 6,1-7.10-13        ▶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2독서 : 에페소서 5,1-2.5-8</p>	<p>▶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음 : 요한 9,1-41</p>
---	---

성가 ▶ 입 당: 121 ▶ 봉헌: 221, 215 ▶ 성체: 181 ▶ 파견: 122



### 사목공지

- ① 4월 5일/19일(일) 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4월 19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3월 봉성체 안내  
3월 봉성체는 3월 19일(목, 오전) 서쪽 지역, 3월 20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 ④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3월 15일~21일)
- ⑤ 매월 넷째 주 3월 22일(일) '한끼 나눔'
- ⑥ 4월 2일(목) 저녁 7시(주님 만찬) Rice Bowl 봉헌금
- ⑦ 4월 3일(금) 저녁 7시(주님 수난) 예루살렘 성전복구 기금 봉헌금
- ⑧ 4월 4일(토) 저녁 7시(주님 부활 성야) 세례, 견진 예식
- ⑨ 4월 5일(일) 10시 30분(주님 부활 대축일) 새벽미사 없음

※ 교육분과 교리교육 공지



사목위원회

- 예비자 교리 / 견진 교리: 3/1, 3/8, 3/15, 3/22 (총 4회)

견진교리는 가톨릭에서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고, 성령의 7가지 은사 (성령칠은: 슬기, 통찰, 의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통해 신앙을 굳건히 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교회의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결합하는 영적 성년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 시간: 매주(주일) 오전 9시 /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구역 및 단체

① 연령회 모임

일시: 3월 1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② 기아모쿠 구역 모임

일시: 3월 21일(토) 오후 5:30  
문의: 김아가다 907-570-2034

③ 레지오 아치에스 행사

일시: 3월 22일(일) 교중미사후  
장소: 성당

⑤ 명도회 모임

일시: 3월 22일(일) 오전 9시  
장소: 컨퍼런스 룸

④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3월 28일(토) 오후 5시  
문의: 안마르첼라 391-8347

⑤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3월 28일(토) 오후 6시  
문의: 김엠마 228-0088

※ 사순기간 중 교중미사 시작 1시간 전 (토요일 4시미사 시작 30분전, 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십자가의 길 담당 분과 단체 (준비물: 기도서)

3월 15일(일)	사순 제 4주일	청소년분과
3월 22일(일)	사순 제 5주일	시설분과
3월 29일(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3일(금)	성 금요일 (오후 6시)	선교분과

기타공지

※ 사무실 공지사항

4월 매일미사책 판매가격 \$14 (큰사이즈 \$18)

※ 유아세례 안내

4월 4일 부활 성야 미사 중에 세례, 견진 예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주세요.



헌금

3월 14/15일 Catholic Relief Services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3월 7일 / 3월 8일: \$7,332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39명
	주일헌금 \$3,782	교무금 \$3,340	2차헌금 -	특별헌금 \$210		

<b>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b>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b>브라이언 오토 바디샵</b>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철상담 흥 프란치스코 / 836-5887	<b>뷰티터치 (BEAUTY TOUCH)</b>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b>New York Life</b>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b>Ginzawon (긴자원)</b>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b>묘지매매</b>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미사 : 말씀 전례(5) : 말씀 전례 중 화답송

말씀 전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거룩한 대화”입니다. 곧,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 말씀 전례의 핵심입니다. 대화란 말하고, 듣기가 반복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독서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화답송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려드리는 행위는 말씀 전례의 매우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종종 신자들께서 이 화답송에 대해서 “듣는 부분”이라고 오해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 우리 입장에서 의 “화답”입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몇몇 신자들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느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화”라고 할 수 있는가?>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례에서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현행 전례법인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 제시하는 화답송에 대해서 살펴보시다. 화답송은 말씀 전례에서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전례적으로도 사목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화답송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도와준다. 화답송은 그 독서 내용에 어울려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사 독서]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1항). 흔히들 신자들께서 독서의 중요성보다 화답송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답송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린다는 점에, 나아가 하느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화답송”이라고 부르지만, 한때는 “찬가송”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느님 말씀을 들은 하느님 백성들이 계단(gradus)에 앉아 경청하다가 시편으로 구성된 노래를 불렀다는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답송 때 시편 선택은 전례주년에 맞추어 독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답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화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노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화답송을 노래로 하기 위해 성가대의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후렴 부분은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답송을 성가대가 따로 노래하지 않는다면, 독서자나 화답송을 노래하는 다른 봉사자가 독서대에서 노래하거나 낭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답송을 노래로 하거나, 낭송을 할 때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어 공동체가 지루해하거나, 너무 어려운 곡을 선택하여 공동체가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알아드립니다

## ※ 사순 제4주일 강론 요약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는 정말로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지만, 과연 사람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사무엘은 외모가 뛰어난 엘리압을 선택하려 했지만, 하느님은 가장 눈에 띄지 않았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사람은 점차 예수님을 알아가며 결국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대로 바리사이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며 오히려 영적으로 더 눈이 멀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눈이 있지만, 편견과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사순 시기는 바로 우리의 눈을 다시 뜨고, 예수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시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